

연중 제32주일

기도서 473 면(A해)

제1독서 : 지 혜 6, 12-16
 제2독서 : 1 데살 4, 13-18
 복 음 : 마 태 25, 1-13

숲 정 이

발행 전 인 : 원주교전주교구 홍보국
 편집 인 : 홍 판 리 국

편집실 : 전주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0041 · 0042 · 0043

강 루



“인생은 영생의 준비”

박 인 호 신부

84년의 연중 시기도 두 주간 밖에 남지 않았다. 이 급박한 시기에 교회는 신자들로 하여금 충실하고 현명하게 살아가도록 권고한다. 오늘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준다.

여하한 일이든 반드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준비 없이 사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유비무환」-사건 준비를 하던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으로서 오늘 복음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니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 상통한다고 보겠다.

세상에는 확신할 수 없는 것이 수도 없이 많으나, 의심할 여지 없는 것 한 가지는 우리 모두 죽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크리스찬에게 있어 죽음이란 각자를 찾아오는 그리스도 앞에 나섬을 의미한다. “항상 깨어 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꼭 오리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스도가 오늘 올지, 오늘 저녁에 올지, 내일 올지, 아니면 1년이나 2년 후에 올지, 혹은 그 후에 올지” 모르므로 깨어 준비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 사실이라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하나의 여정(지나가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인생을 과소평가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최대한의 중요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최대한의 중요성을 부여함은 참 생명을 맞이 위한 준비작업과 동일하다.

이렇게 준비를 잘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의 희망이다. 반대로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공포요, 두려움이며, 절망이다. 가장 충실한 준비는 주어진 순간 순간을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준비를 잘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일생동안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하느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일생에 대한 총 결산보고를 하느님께 바쳐야 한다. 자식이 하루의 일을 부모에게 보고하듯, 레지오 단원이 활동보고를 하듯이, 우리도 일생 전체를 하느님께 보고해야 한다. 우리는 누구나 이 결산보고에서 피할 수도 제외될 수도 없다. 충실한 보고를 위해 현명하게 영생을 준비하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창인동 보좌신부)



밥 굶는 나그네

다음 주일은 제17회 「평신도의 날」이다.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는 이 날을 맞아, 200년대를 마무리 짓는 시대적 징표와 과제를 되새겨 보자며, 반성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 성인탄생과 교황 방한 등으로 들떠 있던 우리 모두에게 적절한 물음이 아닐 수 없다. 제3세기의 발돋움에 앞서 조용히 생각해 보자.

-인간 생명에 대한 경의와 사랑의 실천에 소홀함이 없었는가?/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지체안에서, 주인의식을 망각하고 친교의 공동체 형성을 소홀하게 하지 않았는가?/헌신적 사회봉사와 예언자적 사명을 통해 사랑과 평화, 진리와 정의를 쫓아하신 분부를 올바르게 실천했는가?/이 땅의 완전한 복음화를 통해 민족과 문화에 기여해야 할 신앙의 토착화를 위해 평신도들은 과연 최선을 다했는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시대의 변화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특히 평신도의 위치와 그 역할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 결과 평신도들은 자신을 새로이 되돌아 보기도 했다. 특별히 한국 천주교회 안에서는 신앙 선조들의 탁월한 활동을 거울삼아 반성의 소리도 컸다. 그리고 여기 저기서 열심히 뛰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 조용히 생각해 보고 싶은 하나는 “주인 많은 나그네 밥 굶는다”는 속담이 던지는 교훈이다. 왜 그럴까?

우리는 그간, 평신도가 교회의 신비체 안에서 결코 소홀한 존재가 아님을 기뻐했는데도 강조해 왔다. 그러다 보니 ‘평신도는 교회의 주인’이라는 뜻만 더 강하게 표현되었는지도 모른다. 주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는 채, 바로 이것이다. 주인은 나그네를 굶겨서는 안되는 것이다. 주인은 책임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200년대를 마무리하면서 「평신도의 날」이 지니는 참 뜻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숲 정 이 산책



□교리 해설

□전주교구 성지⑩

연 옥(煉獄)

천호 순교자 묘지군(群)

11월은 위령성월이다.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미사를 드리고, 기도와 선업을 행해야 하는 달이다.

여산에서 동편으로 천호산을 넘으면 산 이름대로 하늘의 뜻을 담은 병처럼 순교자들의 묘소가 묘지군을 이루고 있다. 고산 본당 관할 공소인 천호는 우리에게 옛부터 다리실 또는 용추네로 알려져 있고 1840년 이전부터 박해를 피해 은신해서 사는 신자들이 교우촌을 형성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 부근에는 박해시대 교우촌이 몇 군데 인접하여 있다. 이곳은 1868년 10월 여산에서 치명하신 분들의 묘지가 있는데 8인 무덤으로 불리는 그 곳에는 분명히 여산에서 치명하신 분들이고 그 외 1983년 봄에 발굴한 두분 역시 여산에서 치명하신 분들로 짐작되지만 여산에서 치명하신 후 행방이 묘연한 분들의 유해도 천호산 기슭에 묻혀 있으리라 추정된다.

연옥이란 이 세상에서 죄의 보상을 다 치루지 못한 영혼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죄의 벌을 받는 곳을 말한다.

우리 가운데 현재 있는 그대로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은총 중에 죽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수많은 악의와 무관심과 배반이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 아직도 회개하고 뉘약내고 정화시켜야 할 뿌리깊은 이기주의가 남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잠정적으로 그 보상을 치르고 천국으로 가는 곳이 있어야 합리적이다.

이곳에는 병인년에 숲정이에에서 치명하신 성인들 중 손 선지·정 문호·한 원서 3분의 묘가 있는데 정 문호와 한 원서의 묘는 1983년 봄에 발굴하였다. 그들이 이곳에 묻힌 것은 같은 동배 출신으로 성인 손 선지가 이곳으로 그의 아들 요한에 의해 묻히게 되자 따라 온 듯 하다. 이 분들이 처형된 후 임시 가매장한 곳에서 오늘의 이곳으로 반장할 때 남긴 일화가 있다. 반장하던 때 관헌들의 경계가 삼엄하여 곤란을 겪었는데 시체가 있는 곳에 가족들이 당도하니 갑자기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짙은 안개가 끼었다. 그런데 이상한 붉은 빛이 무덤을 비추어 땅을 분간하게 되어 시체를 염습하여 오는데 근방에 서기가 피상하게 지을 뿐 아니라 위험한 지경을 벗어나 안전지대에 당도하니 안개가 말끔하게 걷혀있다고 반장한 가족들이 증언하고 있다.

연옥이란 말이 성서에 있는 것은 아니고, 연옥에 관한 교리도 성서에 분명하게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연옥에 관한 믿음은 오래되고, 하느님의 심판에 대한 성서의 분명한 가르침에 뿌리박고 있다. 연옥에 대한 믿음은 또한 하느님을 보기 위해서 성덕이 필요하고 용서받은 죄에 대한 현세적 벌이 있다는 교리에 근거한다.

현재 이 곳에는 세 분의 성인과 열 분의 무명 순교자 묘가 있다.

마카베오 후서를 보면 연옥에 대한 교리가 함축되어 있다. 전몰 군인들을 위하여 바쳐진 제사에 관한 구절이 그것이다. "그가 경건하게 죽은 사람들을 위한 훌륭한 상이 마련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그것이야말로 기록하고 경건한 생각이었다. 그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바친 것은 그 죽은 자들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마카베오 12,45).

1983년 봄 대대적인 순교자 유해 발굴 작업이 끝난 삼일 후 돌연히 광주에서 한 젊은 부인이 이곳을 찾아왔다. 사연인즉 간밤의 꿈에 생시처럼 들리는 말이, 천호공소에 순교자 묘를 발굴하여 성지를 개발하는데 자기에게는 그곳에 기도의 집을 지으라고 명하였다 한다. 이튿날 천호공소를 방문하여 꿈의 현상과 똑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교부들의 가르침과 교회의 관습을 보면 연옥에 대한 교리는 분명하다. 예를 들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성인은 죽은 자리에서 회개하여 현세에서 보속활동을 할 시간을 갖지 못한 이들은 후세에서 정화의 불로 성화될 것이라고 가르쳤다. 아우구스띠누스 성인은 시편 주해서에서 자신이 죽은 후에 정화의 불을 당할 필요가 없도록 현세에서 자신을 정화하시라고 하느님께 청한다.

순교자들은 오늘을 사는 후손들에게 당신의 정신을 이어 주교자 불같은 마음을 식히시지 못하는가 보다.

교부들의 저서에는 연옥의 존재뿐 아니라 죽은 신자들이 생존자의 기도, 특히 미사성제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언급이 많다. 고대 비문에 초대교회에서도 죽은 이를 위한 미사가 드려졌다는 것이 나타난다. 우리들과 그리스도 안에 죽은 이를 연결하는 유대를 명심하면서 교회는 끊임없이 죽은 이를 위해 기억하고 기도한다.

❀ 원고를 모집합니다

교구보 숲정이에 실릴 교우 여러분의 원고를 모집합니다. 서로 신자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글이면 어떠한 내용이든 환영합니다.

원고량 : 200자 원고지 3~6매

보내실 곳 : [520] 전주시 서노송동 560~6

전주교 전주교구청 홍보국

"예수여, 우리를 지옥 불에서 구하시고 연옥영혼을 돌보시되 제일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신속배달 설비시설

한국 가스상사

☎ 3-1457-72-0612

김성두(토마스)

이미자(안첼라)

결혼, 회갑, 돌, 각종문화행사, 비디오 특수촬영 전문

대우전자 비디오 특약점

영진 비디오 음악사

취급품목

대우전자 T·V, V. T. R, 각종성서, 교육용, 프로테이프, 판매 및 교환

채석자(클라라)

2-4094 전주 백화점 옆

팩토링 분할 판매 (3, 6, 9, 12, 15회)

금성 북전주 대리점

TV, VTR, 냉장고, 세탁기 가전제품 일절

안춘기(베네틱토)

김금수(세시리아)

전북대학교 입구 3-2419 74-2419

이 땅에 빛을



한국천주교회
200주년기념

(경) 농민 신앙 대회 (축)

“사랑으로 하나되자”

일시 : 오늘(11일) 오전 11시~오후 4시
장소 : 전주 해성학교 (췌정이)
참가대상 : 교구 내 신자 및 농민들
주최 : 천주교 전주교구
주관 : 천주교 전주교구 농민 사목위원회

□ 성지개발 성금

교구 내 성지개발을 위하여 여러분이 성금을 기탁해 오셨다. 현재 교구에서는 성지개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1차적으로 중바위산 밑에 성 이명서 묘역을 조성중에 있다. 성지개발을 위하여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우리의 기도와 관심을 새롭게 해야 하겠다.

성금해 주신 분들(단체)

북자회-1,558,566원, 재경 전주교구 성소후원회(풍남회)-200,000원, 대구 내당동 신자일동-277,880원, 주현동 구애옥-5,000원, 충북 지현동 송영섭 신부-10,000원, 서울 능성 2동 현석호-10,000원, 서울 도봉동 신자일동-200,000원

□ 해외 교포신자들 성소 후원 성금

미국 Atlanta 한인교회(주임 한봉섭 신부) 신자 일동은 전주교구 성소후원을 위하여 영적예물 특별기도 4554번, 미사참례 106번과 함께 현금 4,000 \$ (3,236,000원)을 Atlanta본당을 방문하신 교구장 박정일 주교님을 통하여 성금하였다.

또한 스위스 한인교회 신자들도 665Fr(221,000원)을 교구 성소후원금으로 보내왔다.

□ 농촌본당, 공소에 알립니다

교구 평협에서는 지난번 103위 경축 행사중 한 부분으로 농촌본당돕기 “덜 필요한 물품수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의류 2,000점, 신발 2쌍자, 병장고 1대, 전열기 1대, 기타 물품들이 수집되어 복지사목부로 인계되었습니다.

위의 물품이 필요한 농촌본당이나 공소에서는 교구 사회복지사목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을 보내주신 본당이나 단체, 개인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교구 사회복지사목부

□ 가톨릭 센타 제 5기 영세식

본당에서 예비자 교리를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초본당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가톨릭 센타 제 5기 예비자반 영세식이 다음과 같이 있게 된다. 새로 태어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보이기 위해 많은 분들의 참여가 있어야 되겠다.

일 시 : 1984. 11. 24(토) 오후 7시 30분

장 소 : 가톨릭 센타 3층(강당) 주 레 : 박 정일 주교님

□ 200주년 행사 기록영화 안내

교구 홍보국에서는 200주년 기념행사중 서울 여의도 시성식을 담은 기록영화 필름을 구입하였다.

해설과 함께 55분동안 방영되는 이 필름은 200주년 기념행사의 절정인 여의도 시성식 광경을 생생하게 느끼게 해줄 것이다.

상영료 : 1만원 (교통비 별도)

요심이(588) 김병오



축! 결 혼

김영애 여사 장남
이 영 남(마르코)
박영완 씨 차녀
박 경 숙
주례 : 김 봉 희 신부
일시 : 11. 17. (오후 1시)
장소 : 전주 덕진성당

□마춤·대머□
신 부 의 집

*웨딩드레스·연주복·
비디오촬영·페백의상·
신부부케·야외촬영
관동도로 서울신탁은행 앞
☎ 6951
정 인 기(논저노)

- 혼수(회갑) 옷감 | 도매상
- 특수 파티복
- 고급 침구류
- 각종 솜 일체
- 커튼지

서울주단

☎ 0453 050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로니카)

학원생 수시 모집(주·야)
철저한 개인지도
V. T. R로 산 교육학

현대미용학원

전주시서노송동(중앙성당앞)
원장 : 김 테레사(금순)
☎ 9206 · 5289



흥국상사 흥국주유소

(회발유·경유·석유) 품질보증·정량신속배달

전주시 팔복동 삼거리
☎ 1193 · 755501
장·마리오
김 테레사



(4) 훈 정 이



1. 교구단위 성령기도회 모임 : 일시-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장소-전주 효자동 성당, 대상-성령세미나 받으신 모든 분들
 2. 빈첸시오회 피정 : 17일 오후 5시~18일 오후 5시, 장소-상관성당, 대상-빈첸시오회원 및 관심있는 모든 분들, 지참물-미사준비·묵주·필기도구·세면도구·모포 1장
 3. 11월 성소자 모임 : 18일 오후 1시 30분, 장소-가톨릭센터 3층, 대상-성소자 모임회원 및 관심있는 분들, 부모님, 지참물-신구약성서·성가집·묵주
 4. 장애자(하나회) 모임 : 18일 오후 2시, 장소-센타 교육관
- ※ 13일-교구청 직원 소풍의 날 : 교구청 업무 쉽니다
□ 축! 영명 : 성 알베르토(15일)-오기순 신부님

제 1 지구 각 분당 소식 ①

(중앙)

전화 ⑤1711~3

수입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나춘성
사도 회장 김인철

1. 복자반 영세자 : 금일 공식미사 후, 강당에 모이세요
2. 복자반 미리내 성지순례 : 18일, 인착순 40명, 회비-5천원, 도시락 자자 지참, 자세한사항은 사무실에
3. 꾸리아 : 금일 오후 2시
4. 9시미사 : 20분전부터 성가연습(미사에 늦지 맙시다)
5. 성모회 : 18일 공식미사 후
6. 교적에 주소 전화번호 틀리시는 분 : 사무실에 신청

□ 지난주 봉헌금 : 980,485원 교무금 : 778,000원
감사헌금 : 이바올라(1만원)

(노송동)

전화 ⑤0969
수·사 ⑤7032

수입 신부 김홍태
보좌 신부 이성우
사도 회장 이흥재

1. 신축기금 십입합시다 : 8만원-강홍욱, 4만8천원-이동선, 5만원-유기정·장명순·손경년·김성권, 4만원-최분애·임만년·이복안, 3만원-장마리아·박오득·오경애·박복순, 2만원-김정옥·박문규·장세시리아·홍성규, 소계-648,000원, 누계-113,014,000원
2. 구역대항 연도대회 : 24일 예선, 본선 25일 1개구역의 출전인원은 10명에서 20명까지 각 구역장님은 18일까지 사무실에 접수하세요
3. 꾸리아 회합 : 오늘 오후 2시 각팀의 간부님들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4. 영세자 모임 : 오늘 공식미사 후 10월 7일 영세하신 분은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5. 신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 (25일 한)
6. 공소 순회미사 : 17일 저녁 8시, 신교리공소
7. 차주전례 : 제1조, 차질없이 진행합시다
8. 아파트소식 : ①성모회 월례회-15일 오전 10시30분 ②성서연구 및 기도회 모임-매주(화) 오전 10시 ③예비자를 안내합시다 : 1인 1명은 안내합시다

(덕진)

전화 신부(3)2182 수입 신부 김봉희
수녀(72)1222 보좌 신부 김요안
사무(72)6259 사도 회장 김상열

1. 감사 : 본당의 날 행사를 사랑과 일치의 대잔치가 되게 물질으로 적극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경품 1등 No. 842980번-사무실에 오셔서 TV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모임 : L.M꾸리아, 요셉회, 청년회
3. 11월은 위령성월 : 교인들을 위한 위령기도와 미사봉헌 잊지 마십시오
4. 조당신자 활동면접 : 13일 밤 7시30분(사제관)
5. 교무금을 속히 냅시다 : 교회 운영에 협력바람
6. 금주 분당청소 : 반석회·카리따스회(17일 3시)
7. 다음주 모임 : 성모회, 반석회
8. 축! 결혼 : 11월 17일 오후 1시 신랑-이영남(마르코), 신부-박경숙
9. 18일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 지난주 봉헌금 : 657,500원 교무금 : 160,000원

(복자)

전화 사제관 75-0592 수입 신부 권영균
사·수 2-5238 사도 회장 김성원

1. 꾸리아 회합 : 다음주일 오후 2시
2. 성우회 :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3. 농민 신앙대회 : 오늘 11시~오후 4시
4. 평신도 주일 : 다음주일(18일) 특별헌금
5. 성당 히타 설치헌금 : 익명-10만원, 익명-5만원, 이보순-2만5천원, 이정순-5천원, 누계-780,000원

6. 가정방문 : 16일(화요일)
 7. 축! 혼인 : 11일 12시 신랑-이유영군, 신부-김순남(세레나)양 18일 12시, 신랑-김제식(마리노), 신부-오오순(요안나)양
 8. 금주전례 : 해설-유덕열, 독서-①장동희 ②정우시아 차주전례 : 해설-김안식, 독서-①정동민 ②진가리파스
- 지난주 봉헌금 : 140,620원 교무금 : 463,110원

(서학동)

- 전화 ⑤8307 수입 신부 김동준
수녀 ⑤2726 사도 회장 김낙균
1. 모임 : 반장님 월례회-오늘 공식미사 후, 꾸리아-다음주일 오후 2시로 연기, 성서회-13일 오후 2시, 성모회-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2. 성전 보수공사 헌금 : 이정순·조수남-각 3천원, 서명덕·김태수·이혜숙-각 1만원, 진영춘·김현배·조호진·김길석-각 2만원, 권연자·한형수-각 5만원, 김미순·익명-각 3만원, 누계-7,198,411원감사합니다
 3. 농민 신앙대회 : 오전 11시 해상학교
 4. 다음주 전례 : 해설-김광수·오정희, 독서-①박경환 ②박중순, 기도-정영희의 동정녀Pr.
- 지난주 봉헌금 : 324,250원 교무금 : 272,000원

(숲정이)

- 전화 ⑤7366 수입 신부 김종길
수·유 ⑤9567 사도 회장 김수결
- ※ 예비자 교리시간 : 화-오전 10시(이 베로니카 수녀님), 수-오후 7시(김 세시리아 수녀님), 목-오후 7시(본당신부님), 일-공식미사 후(이 베로니카 수녀님)
1. 꾸리아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2. 누깰다 부녀회 : 금주 수요일(14일) 어머니미사 후
 3. 성모회 월례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구역방문 : 오후 2시~5시, 오후 7시~10시, 13일-서신5구, 14일-진북2동 1구, 15일-진북2동 2구, 16일-진북2동 3구, 20일-진북2동 4구, 21일-진북2동 5구, 22일-진북2동 6구, 23일-진북2동 7구 ※ 교무금과 주일금은 물론 신학생 후원금을 정성껏 바칩시다
 5. 금주전례 : 해설-이귀례, 기도·독서-신종현·유희자 차주전례 : 해설-이귀례, 기도·독서-김남곤·허옥순
- 지지구 봉헌금 : 197,920원 교무금 : 301,200원

(전동)

- 전화 신부 ⑤6208 수입 신부 김정삼
사무 ⑤3222 보좌 신부 김양현
수녀 ⑤8347 사도 회장 김병오
1. 사도회·자모회·장우회 : 공식미사 후
 2. 성화회·피미시움·성마리아 꾸리아 : 다음주
 3. 추계 가정방문 : 13, 14, 16, 17일 풍남동·남노송동
 4. 200주년 기념사업 성금 : 조미령·김민준-각 10만원 서문우자-5만원·유광수-5만원, 김병욱-4만원, 고석준·임기주-각 2만원, 오재승·방윤순-각 1만원
- 지난주 봉헌금 : 809,990원 교무금 : 692,000원

(호자동)

- 전화 신부 75-3841 수입 신부 박중신
수녀 2-4804 사도 회장 이교성
사무 2-0915
1. 성당 온풍기(2대) 설치 : 익명의 회사자들에게 감사
 2. 성당 내외공사 : 깨끗히 단장되었습니다
 3. 별자방문 : 13일
 4. 글라라회 : 공식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 268,180원 교무금 : 265,000원